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 방법

글 | 김동환 _ 고려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donghwan@korea.ac.kr

얼마 전에 우연히 집사람이 공짜 표가 생겼다고 해서 영화를 봤다. ‘페인티드 베일’이라는 서머릿 몸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다. 중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화면만큼이나 주인공들의 대사가 인상적이었다. 후반부에 늙은 수녀원장이 자신과 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나를 많이 실망시켰다. 세월이 흘러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이제 그냥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게 내게 주어진 의무니까.’

젊은 날의 열정이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의무감만 남았지만 그나마도 떨치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의 처지를 잘 담아낸 말인 것 같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노수녀의 정직해 보이는 표정과 맑은 눈동자가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그라지는 젊은 날의 동력

의무감만으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영화 속의 인물은 정직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느낌을 정직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인정하기 싫어서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예술가를 떠올리게 한다. 베토벤이나 고흐 같은 대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열정이 그런 대가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다. 어린 시절에 시 한 구절 노래 한마디 때문에 밤늦게 잠 못 이루고 친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때도 있었다. 좀 더 나중에는 실험실에서 논문에 한 두 줄 실리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없는 아

이디어를 붙잡고 시간을 잊고 지내던 때도 있었다. 그런 것을 열정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열정은 젊은 날의 동력으로서 나를 이끌어 왔던 것 같다.

이제 벌써 연구와 학문에 대해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열정은 어느새 의무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어찌면 지적인 호기심을 좇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결과를 생산해 내는 쪽으로 걸어가도록 스스로를 이끌어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문한다.

학위를 받은 지 15년이 지났고 이제 실험실도 꾸며져서 부족하나마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생산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까 가끔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과정까지도 어찌면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고 열정이나 흥분으로 뒷받침되는 지적인 탐구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자극이 절실했던 나머지 박사학위 받을 때 연구했던 테마를 떠나서 조금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느껴졌던 그 연구도 몇 년 지나면서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누군가는 3년 주기설을 얘기했다. 사람이 무엇에 빠졌다가 그 대상에 싫증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보통 3년이라는 것이었다. 얼마나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학교 편제가 대략 3년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그런가 보다 한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일단 무척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열정이 그 원인인지 아니면 열정의 결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인지는 분간하기 힘들다. 그리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서 임무를 완결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대개의 경우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해 나간다. 또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 열정적인 사람은 대개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 하고 음악이나 미술에도 조예가 깊으며, 심지어는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것도 뛰어나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두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고 자극하므로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오히려 다른 분야에 몰두함으로써 휴식을 얻고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뭔가 자연스럽게 열정을 되찾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


열정적인 타인의 삶에 전염되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보자. 여자 주인공 '키티'는 사교적이고 활달해서 파티를 즐기고 춤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조용하고 학구적인 성격의 '윌터'를 만나 결혼한다. 윌터는 세균병리학자로서 중국으로 파견되어 연구에 몰두한다. 키티는 중국에서의 생활에 환멸에 가까운 염증을 느끼고 이에 무심한 남편을 미워하게 되지만 때마침 콜레라가 발병한 산골 오지 마을로 자원한 윌터를 따라 나선다. 키티는 하루하루를 답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르게 되고 그 곳에서 헌신하는 수녀들을 만난다. 수녀원 부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남편의 모습과도 만난다.

시간이 갈수록 무위도식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키티도 열정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어느 저녁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수녀님들이 대단하시다. 자신을 희생해서 아이들을 저렇게 양육하는 것을 보면 존경스럽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도 훌륭하다. 환자를 열심히 돌보는 당신이 자랑스럽다.'

모든 게 그렇지만 열정도 전염성이 강한 것 같다.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대면하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열정이 지속되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나를 감싸는 것이다. 주변에 시간을 아껴 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내게 몇 명이나 있는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곧 여름이다. 날씨가 더워지면 생활의 리듬도 늘여지기 쉬울 것이다. 이럴 때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 보거나 아니면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극을 받아 보는 것이 어떨까.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아마도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는 삶을 여름 내내 부지런히 살게 되지 않을까.

바쁘게 돌아가는 일의 연속선상에서 벗어나 누구를 만나 볼까 하는 즐거운 고민에 잠깐 빠져 본다.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공연을 보는 게 좋을까 하는 궁리도 해 본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